



Ⅲ. 기본 구상



Ⅲ

C · H · A · P · T · E · R · 3

기본 구상

1. 비전의 설정

『21세기 ‘섬의 시대’의 중심, 신안군』



1) 21세기는 ‘해양의 시대’ , ‘섬의 시대’

□ 해양의 시대

- 20세기 산업화시대에 육지자원은 고갈됨
- 해양탐사기술의 발달로 해양은 미래자원의 보고로 알려짐
- 해양생물, 해저광물자원, 에너지자원, 식량 및 약품자원 등 미래 신산업기술

개발의 원천자원을 보유함

- 세계 물류유통의 75%를 해양이 감당함(우리나라는 99.7%)
- 해양영토 확장, 해양자원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빈발함
- 해류, 해수온도 변화는 지구온난화의 핵심 사안임

□ 섬의 시대

- 섬은 해양의 거점, 해양영토 지킴이 : ‘해양분쟁’은 ‘섬 분쟁’으로 촉발됨
- 해양관광의 거점, 생물다양성 및 문화다양성의 보고(寶庫), 6차 산업의 최적지
- 2014년은 유엔이 정한 “International Year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”
- 섬에 대한 인식의 전환 : 부정적 사고에서 긍정적 사고로 전환
- 섬에 대한 관심 증대 : 관광객 증가, 국가정책의 확대

□ 섬에 대한 발상의 전환

- 섬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공간 : 오지와 낙후지의 대명사에서 새로운 중심으로
- 섬의 가치와 장점의 재발견과 활용 : 부정적 편견에서 긍정적 잠재력의 활용으로
- 섬 명품브랜드의 창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: 시혜의 대상에서 내발적 산업화의 대상으로

2) 신안군은 대한민국 섬의 중심

□ 신안군의 해역

- 총면적 : 13,310km²(육지 656km², 바다 12,654km²) -서울(606km²)의 22배
- 바다면적 : 전남 바다면적(26,450km²)의 48%, 전국(86,891km²)의 15%
 - 전남의 육지면적(12,256km²)을 상회함
- 신안군은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적 다도해 해역

□ 신안군의 섬

- 2015년 5월 기준(전라남도, 도서문화연구원) : 신안군 857개(유인도 76, 무인도 781), 전라남도 22,165개(유인도 279, 무인도 1,886)
- 2015년 해양수산 주요통계 기준 : 전라남도 섬(2,219개)은 전국(3,358개)의 66%, 신안군의 섬은 전라남도의 40%(전국의 26%)

3) 신안군은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적 다도해 해역

□ 유네스코신안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

- 2009년(우리나라 세 번째로 지정됨),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조화 목적으로 세계적인 뛰어난 생태계에 지정.(57,312ha. 핵심지역 5.6%, 완충지대 25%, 전이지역 69.4%)
- 2016년 3월 19일 신안군 전체로 확대 지정(제28차 유네스코 ‘인간과 생물권계획(MAB)’ 국제조정이사회, 페루 리마)

□ 다도해해상국립공원

- 1981년 신안군, 진도군, 완도군, 고흥군, 여수시 1개 시, 4개 군 18개 읍면 지정

□ 갯벌도립공원

- 2008년 신안증도갯벌과 무안갯벌(최초의 갯벌도립공원)
- 2014년 11배로 확대(신안로 전역)
- ‘갯벌국립공원’ 지정 추진

□ 서남해안 갯벌, 세계자연유산 추진

- 서해안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, 42%가 전남에 분포
- 2010년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, 2011년 세계자연유산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
- 2014년 7월 30일 갯벌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발족(신안군청에 사무국)
- 신안의 ‘갯벌섬’을 주요 타겟으로 삼음

□ 람사르습지 지정

- 흑산면 장도 습지, 증도 갯벌 등

4) 발전의 전기를 맞은 신안군의 빅이슈

□ 새천년대교 개통

- 신안군 동부권 압해면과 중부권 암태면을 연결하는 서남권 최대 연륙교
- 2017년 개통 후 2020년 관광객 500만 방문 예상
- 중부권역을 중심으로 새천년대교 개통을 대비한 관광, 산업인프라 구축 필요
- 자연환경, 문화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정책 사업 필요

□ 흑산공항 개항

- 2020년 흑산공항 개항으로 흑산도의 급속한 변화 예상
- 해상교통에 의한 생활환경, 관광인프라의 개선 필요
- 항공관광을 대비한 관광프로그램 정책 사업 필요
- 흑산면을 총체적으로 관리, 활용할 수 있는 ‘흑산군도’ 개념 도입, 발전계획 수립

□ 십자형 도로시스템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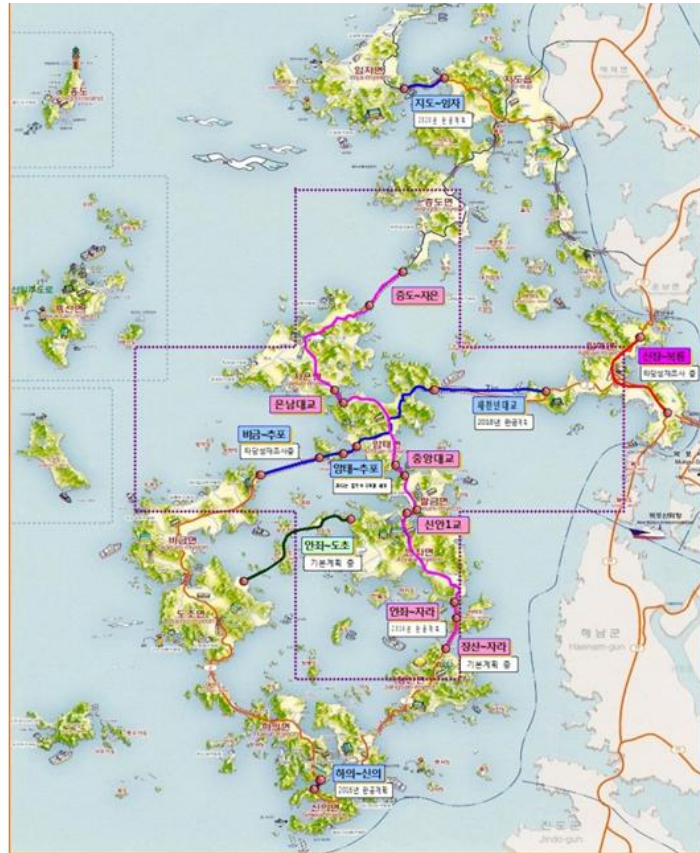
- 연륙, 연도교의 확충을 통한 십자형 도로시스템 구축(국도 2호선, 국도 24호선, 국도 77호선, 지방도 805호선, 지방도 825호선)
- 연륙교 : 지도대교, 증도대교, 압해대교, 김대중대교 등
- 연도교 : 중앙대교, 신안1교, 은안대교, 서남문대교
- 개통 예정 연륙, 연도교 : 새천년대교(압해-암태), 임자대교(지도-임자), 안좌-자라 연도교, 하의-신의 연도교
- 계획 중인 연도교 : 비금-추포 연도교, 안좌-도초 연도교, 증도-자은 연도교

<연륙교>
 지도대교, 증도대교, 압해대교,
 김대중대교

<연도교>
 중앙대교, 신안1교, 은암대교,
 서남문대교

<개통 예정>
 압해-암태 새천년대교
 안좌-자라 연도교
 하의-신의 연도교
 지도-임자 연륙교

<십자형도로 구축>
 국도2호선, 국도24호선, 국도77호선,
 지방도 805호선, 지방도 825호선



<그림 3-1> 신안군 십자형 도로와 연륙·연도교

□ 육해공을 연계한 일일생활권역 진입

- 도로, 항만, 항공 등 편리한 교통에 의하여 일일생활권역으로 진입
- 도로 : 서해안 고속도로, 호남선 고속철 완전 개통
- 항만 : 흑산도행 여객선 터미널의 전진 배치, 현행 항구의 선진적 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관광서비스센터 기능강화
- 항공 : 무안국제공항, 흑산공항 개항
- 연륙, 연도교의 확충
- 연안여객선의 지속적인 활용 및 주요 항구의 선진적 개발

2. 추진 전략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섬의 가치재발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조경제의 창출 공간 : 미래의 신성장동력 • 생물종다양성의 보고, 문화다양성의 보고 • '갯벌섬'의 가치 : 자연이 숨 쉬는 섬 |
| 하드웨어 중심에서 탈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"소프트웨어 ↔ 하드웨어 ↔ 휴먼웨어 " • 섬주민은 섬 발전의 주체 • 섬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 |
| 공존, 공생의 섬 개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사회, 관광객, 생태계의 공존과 공생 • 살아있는 섬, 살기 좋은 섬, 살고 싶은 섬, 가고 싶은 섬 • 청년 유입 노력 : 일본의 I-turn, U-turn 사례 |
| 미시적 전략과 거시적 전략 차별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시적 전략 : 특화상품의 개발과 고도화, 생활환경 및 복지환경개선, 현안 주요이슈 대응 • 거시적 전략 : 거점 섬 중심의 개발 |

<그림 3-2 > 추진 전략의 목표

1) 전략설정의 배경

- 신안군 전체 도서의 권역별 설정
-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개발 제안
- 권역내 도서별 고유성을 고려한 발전방안 제시
-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

2)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휴먼웨어의 균형 전략

-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
 - 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
 - 하드웨어의 가치를 높여줄 소프트웨어, 운영주체인 휴먼웨어가 균형있게 함께 구동해야 함

- 창의성 개발을 위한 리더십이 필요 : ‘섬 코디네이터’, ‘섬 발전연구원’

□ 소프트웨어

- 기초조사 : 문화, 생태, 생활(공가 등)에 대한 정보 축적
- 신안군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비교 우위의 요소 찾아내기
- 콘텐츠, 컨셉, 프로그램 등 문화산업
- IT, BT, CT산업과의 연계사업 발굴

□ 하드웨어

- 소프트웨어를 극대화시킬 기반시설(SOC) 건설
- 기왕의 시설 재활용
- 생활 기반시설, 소득 기반시설, 생활안전 시설 등의 확충
- 시대변화에 요구되는 환경시설의 복원

□ 휴먼웨어

-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운영할 인력 양성
- 맞춤형 주민역량 강화
- 신주민 유입 전략 : 관광(일시적 유입), 귀도(영구유입)
- 고령화, 인구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행정지원 강화
- 고도의 섬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기구 설치 (예. 한국섬발전진흥원)

3) 거시적 전략

□ 거점 섬을 중심으로 주변 섬 개발

- 해류와 지형지질에 의한 권역별 격절성(단절성)이 발생
- 자연성, 역사문화, 산업측면에서 거점이 되는 섬과 주위 부속섬과의 연계를 고려한 개발 구상
- 권역별 거점 섬 집중 개발

- 거점 섬과 주위 섬 간의 해상교통망 가동
- 거점 섬은 면 단위의 큰 섬일 필요는 없으며 상호보완적 역할이 필요
- 다양한 수상교통수단 : 해상버스, 해상택시, 위그선 등 도입

□ 중부권의 획기적 변화 : 새천년대교 개통(2018년)

- 관심 급증 : 단기적으로 접근성 급개선, 관심 급증, 장기적으로 ‘섬성’ 상실로 중부권 섬들의 매력 약화 가능성
-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 : 방문객 급증으로 관광지 급성장, 자연과 문화 훼손, 긍정적 요소 극대화과 부정적 요소 차단을 위한 전략 시급
- 단기적 관심의 지속화, 주민 안정화 대책 필요
- ‘섬성’의 유지 :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다이아몬드제도의 여타 섬들과의 연계성 확보

□ 흑산군도의 종합적 개발 : 흑산공항 개항(2020)

- 접근성의 다양화, 안정화, 국제화
- 국제수준의 관광기반시설 건설
- 항공연계 관광인프라 : 공항과 크루즈 거점항
- 목포권 흑산도행 선착장의 전진배치
- 고대유적 발굴(읍동마을)과 국제 섬 도시(International Island City)건설
- 흑산도 역사문화자원(유배문화, 어로 및 파시문화)을 이용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
- ‘흑산군도’ 개념 도입 : 대흑산, 영산도, 장도, 흥도 / 만재도, 가거도 등 소권역 개발 개념 도입
- 양식섬, 에너지자립섬, 힐링섬 등 섬 별 특성화 전략

□ 신안군 십자형 도로구축 대비한 개발전략

- 항공, 선박, 철도가 섬 도로와 연계 : 일일생활권 편입
- 권역별 농수산물 및 가공 상품의 물류유통 비용 개선

- 신안군 각 도서지역의 균형적 발전
- 새천년대교 개통 후, 중부권유입 관광객 분산
-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의 분산 배치
- 신안군 행정지원의 효율성 증대
- 목포시와 전남 동부권역과의 연계사업 가능

4) 미시적 전략

□ 특화 섬 산업 상품의 개발과 고도화

- 게르마늄 토양과 갯벌 바다, **해풍**이 어우러진 **청정** 이미지 : ‘섬산(産)’, ‘옥해산(沃海産)’의 고급 브랜드화
- 권역별 대표 농수산물의 특화, 고품격화
- 정확한 과학적 검증 토대 하에 상품인증 전략
- 섬별 관광상품 개발

□ 품격 있는 상품, 친환경 산업,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이윤 극대화

- 최적의 유통시스템 : 고급 단골 고객 확보 노력
- 권역별, 면별 농수산 6차산업, 명품화 지정
- 영농·수산 코디네이터 : 대체 작물, 수산물의 발굴,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
- 청정에너지 산업, 첨단 바다양식산업, 갯벌양식산업, 수산물 다품목화

□ 해외 경쟁력 강화

- 청정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을 위한 국제인증제 도입
- 관광지 다변화를 위한 신안군의 국제관광유치 전략 수립
- 국제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취약한 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철저한 교육
- 생산지의 철저한 생태환경의 보전을 통한 친환경 상품 이미지 확보
- 신안군의 맛, 멋, 미를 홍보할 수 있는 국내외 홍보력 강화

5)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(2018~2027)의 선도

- 계획 명칭 변경 제안 : 종합개발계획→종합발전계획
- 계획의 인식 전환 : 섬의 가치와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
-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
- 새로운 목표 설정 : 살아 있는 섬, 살기 좋은 섬, 살고 싶은 섬, 가고 싶은 섬



<그림 3-3> 신안군 종합발전계획 선도 방향

3. 4대 목표 설정

4대 목표 : 살아 있는 섬, 살기 좋은 섬, 살고 싶은 섬, 가고 싶은 섬

1) '살아 있는 섬'

□ 개념 : 생태

- 섬 생태계의 보전
-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마련
- 지속가능한 섬 발전 지향 및 섬 생태계서비스 개념 도입
- 섬 생태낙원 (Eco-Paradise Island)의 건설

□ 섬 생태계의 보전

- 섬과 갯벌 주요 생태계의 적극적 보전을 위한 전략 수립
- 해수욕장, 사구, 식생, 생물서식처, 해양생물에 대한 모니터링
- 기후온난화에 의한 섬 생태계 변화 면밀하게 대응
- 보호구역에 대한 보전 및 활용 방안

□ 자연의 가치 창조

- 에코 아일랜드 개념의 구현
-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보전, 갯벌도립공원, 갯벌국립공원 지정
- 섬 생물문화다양성 자원 발굴과 보전
-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, 갯벌자연유산 지정으로 자연의 가치 창조
- 신안군 고유 자생식물, 생물자원의 효율적 활용

□ 지속가능한 섬을 위한 SDG전략 적용

-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섬 만들기
- 국제생물다양성보전전략에 대응을 위한 국가생물주권 확보
-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(Sustainable Development Goal)전략에 대응

2) '살기 좋은 섬'

□ 개념 : 산업, 경제

- 특화된 섬 산업의 육성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
- 섬은 6차산업의 최적지
- 역발상의 신기술 거점화

□ 갯벌바다('沃海')산 수산물의 명품 브랜드화

- 탁한 갯벌바다는 더러운 바다가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비옥한 바다임 : '옥해(沃海, 비옥한 바다) 브랜드' 창출
- 전국 제일의 갯벌을 이용한 갯벌양식 : 전남의 갯벌면적(1,044km²)은 전국(2,487 km²)의 42%, 신안군 갯벌(343.1 km²)은 전남의 33.1%
- 청정 수산물의 국제적 명품화 : 소금, 낙지, 홍어, 민어, 우럭, 새우를 비롯한 건정상품의 중국, 일본시장 개척

□ '섬산' 농산물의 명품 브랜드화

- 청정, 해풍, 게르마늄 토양에서 재배한 섬산 농산물의 고급 브랜드화
- 섬별 특화작물 개발, 명품화 시키는 '일도일품(一島一品)' 전략
- 예 : 비금도의 '섬초, 임자도의 대파와 마늘, 자은도의 땅콩 등 기존 섬산물의 명품화
- 대체 작물의 개발을 통한 소득의 다변화 : 구근산업, 아열대 과일, 화훼, 자원식물의 고품격화, 한방약용식물, 나물 등
- 사구식물, 염생식물, 해조류 등의 활용방안 개발 : 의약품, 식용, 산업용

□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

- 감성마케팅 개발 : 과학적 성분분석 + 생태환경 개선 + 문화 스토리텔링 접목
- 예) 소금 : 소금의 성분분석 + 염전의 생태환경 개선 + 소금이야기
- 섬 음식문화 : 섬에서 나오는 식재료로 '섬 밥상' 개발 및 보급
- 상품의 다품목, 다양화, 소규모 고급화 전략 추구(관광과 연계)

□ 생산지와 가공지의 통합, 유통체계 정비

- 섬별 특화 농수산 가공시설 건설
- 합리적 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
- 생산(1차)과 가공(2차)과 체험관광(3차)을 연계한 6차 산업화

□ 역발상의 신기술 개발의 테스트베드

-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의 테스트베드(가파도, 가사도, 울릉도의 사례)
- 해수 담수화 기술 개발의 테스트베드

3) '살고 싶은 섬'

□ 개념 : 복지, 정주조건, 공동체문화

- 복지, 힐링, 정(情), 평화, 안주 등 섬이 가지는 긍정적 특성 부각
- 섬 지역에 적합한 '섬복지' 프로그램 개발
- 교통, 의료, 주택, 전기, 물 등 정주조건 개선
- 섬 공동체문화의 공유를 통한 힐링의 삶

□ '섬 복지' 의 개념 도입

- 고령화에 대비하는 고도의 생활 전략 수립
- 의료, 교육, 문화, 환경 등 복지시설 확충
- 전기,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환경 수준 향상
- 섬 관광 활성화에 의한 도서 주민들의 적응 및 대응

□ 에너지 자립 섬 실현

-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제로 하우스(Passive 전략) 적용으로 섬 주거 유형의 개선
- 도서해양에 적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적용(Active 전략)

□ 물 문제 해결

- 해수 담수화 시설 확대
- 새천년대교 개통, 흑산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물 부족 대응
- 빗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
- 권역별 상수관 시설의 연계
- 물 절약 사용에 대한 주민, 관광객 교육 강화

□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

- 연륙, 연도교를 이용한 신안군 십자형 도로망 구축

- 도로개선, 거주지 개선, 에너지 자립을 통한 풍요롭고 편리한 섬
- 연안여객선 시스템의 개선(공영제 도입)

□ 안전한 섬 생활,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비 확충

- 태풍, 지진, 해일, 적조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, 안전한 섬 생활을 유지
- 주요 관광지 환경오염 방지 및 관광교육
- 무인도, 해양쓰레기 처리, 산업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
- 비점오염원 확산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

□ 섬 공동체의 회복

- 섬성(islandness)의 긍정적 가치를 살린 섬의 자부심, 매력 발굴
- 섬 고립성의 가치 재인식을 통한 고유한 섬 생활양식의 활용 가능성 고려
- 해양문화, 반농반어(半農半漁)의 섬 공동체문화의 재인식과 현대적 가치 창출

4) '가고 싶은 섬'

□ 개념 : 주민, 관광객, 이주민

- 주민의 역량강화 방안
- 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용
- 관광객(일시적 이주민) 유치 방안
- 영구적 섬 이주민 유도 방안

□ 주민 역량강화

- 섬 주민에 의한 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
- 관광 수용능력 증진 프로그램 실행
- 품격있는 섬 관광을 위한 생활 개선
- 섬 주민은 섬 발전의 주체, 섬 주민에 의한 정책제안
- 섬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, 섬의 가치를 주민 스스로 인식

□ 섬 자원의 수집과 활용

- 섬의 정확한 파악 : 섬의 기준 설정, 섬의 수, 유인도와 무인도의 실태
- 섬 자원의 DB화, 지속적 업데이트
- 자연자원(생물, 무생물, 생태환경), 문화자원(역사, 민속 등), 생활자원(토착지식), 특산품 등

- 세계 섬 지역 자원과 비교, 교류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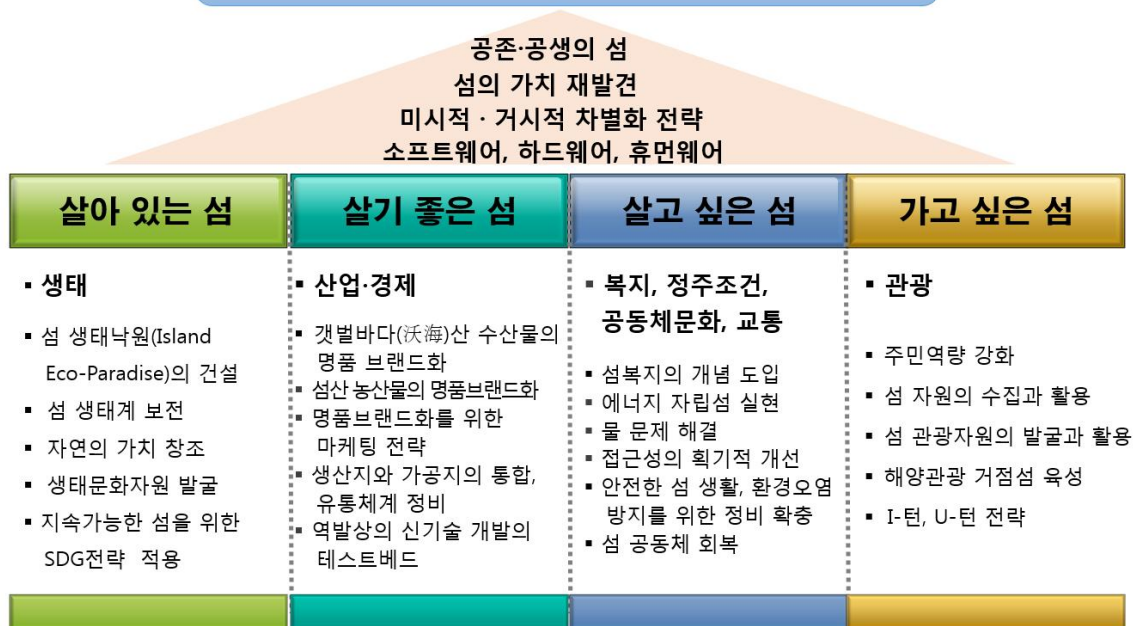
□ 섬 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용

- 섬 생태자원의 활용
- 섬 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
- 섬 스토리텔링 개발
- 관광 인프라 구축
- 섬 거점의 다양한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
- Deep history, Beautiful nature, Slow life와 food를 이용한 Slow tourism : Island Tourism

□ U-턴, I-턴 전략

- 귀도민 증가 전략을 통한 영구적 인구 유입
- ‘섬 유학’의 개념 도입을 통한 육지 학생 섬 유학 유치
- 젊은 층 섬 유입을 위한 정주지원사업
- 청년 유입 노력을 위한 중앙정부-지자체-주민 협의체 구성
- 일본의 I-turn, U-turn사례 도입

21 세기 “섬의 시대”의 중심, 신안



<그림 3-4> 신안군 4대 발전 목표와 과제

4. 권역 설정

1) 권역설정의 의의와 선정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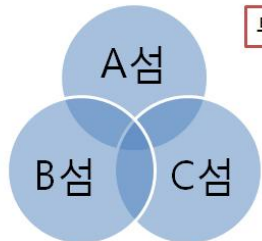
□ 권역설정의 의의

- 해양환경과 섬 지형 및 생태적 특성, 생활문화권의 고려
- 효율적인 경제활동과 자원이용을 위한 공간적 구분
- 전체 도서지역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섬 발전 정책
- 유사 산업과 관광을 위한 중복투자 지양
- 권역별 자립적 경제 발전을 위한 시설기능 강화
- 관광지의 분산 개발, 관광객의 분산 유도



지리적 인접성, 상호 보완적 특성을 고려

- 해양환경과 섬 지형 및 생태적 특성, 생활문화권의 고려
- 효율적인 경제활동과 자원이용을 위한 공간적 구분
- 전체 도서지역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



투자 대비 사업 효율성을 고려

- 중복투자 지양
- 자립적 경제 발전을 위한 시설기능 강화
- 관광지, 관광객의 분산

〈그림 3-5〉 권역 설정의 의의와 기준

□ 권역 선정기준

- 신안군 행정지침
- 행정운영의 효율성
- 현행 교통 체계의 준용
- 연륙, 연도에 의한 접근성
- 흑산공항 개항에 의한 흑산군도의 중요성 대두
- 새천년대교 개통 및 십자형 도로 구축 대응

2) 신안군 6개 권역

- 동부권 : 압해읍
- 북부권 : 지도읍, 임자면, 증도면
- 중부권 : 자은면, 암태면, 팔금면, 안좌면
- 남부권 : 장산면, 하의면, 신의면
- 서부권 : 비금면, 도초면
- 흑산권 : 흑산면 외 부속도서



<그림 3-6> 신안군의 6개 권역


3) 권역별 발전 구상

□ 동부권

| |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포시와 연계한 도시근교형 전원생활 - 섬과 육지의 가교 - 농수산 물류유통의 중심지 - 대체 작물 개발, 농업환경 개선 연구기관 | |
|---|--|

| 권역 | 특성 | 발전방향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<p>행정교류 · 전원생활권역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목포권과 연속되어 내륙과 접근성 용이 ▪ 목포와 연속, 운남대교, 압해대교, 김대중대교 등으로 육지부와 연속, 연도됨 ▪ 신안군 행정기관 위치 ▪ 광활한 갯벌을 이용한 높은 해양생태 자원활용 가치 ▪ 새천년대교 및 송공항 배후지 개발 ▪ 주거 및 관광단지 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송공항과 새천년대교를 활용한 관광객 유입 ▪ 육상과 해상을 이용하는 쌍방향 교통요지의 중심으로서 유통시스템 개발 ▪ 신안군 각지에서 수확되는 농수산물의 유통 센터 설치 ▪ 수산, 양식, 자원화 연구개발 중심지 |

□ 중부권

| |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새천년대교 개통, 신안군 행정중심, 관광중심 - 해변, 갯벌, 산,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쾌적한 생태관광 - 예술문화의 섬(김환기, 암태농민운동 활용) |  |
|---|--|

| 구역 | 특성 | 발전방향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행정 · 예술 · 생태관광권 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새천년대교 개통으로 접근성 용이 ▪ 목포, 무안, 압해대교, 자은-암태-팔금-안좌면 연도됨 ▪ 신안군 행정 · 관광의 중심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새천년대교 개통(2018)에 의한 관광중심지 ▪ 새천년대교 개통에 따른 신안군 중부권 종합개발계획 의거, 개발 ▪ 자은-암태-팔금-안좌면 연계 교통 및 관광지 개발 ▪ 4계절 체류 관광지 조성 |
| 섬별 계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은면 : 자생생물자원화, 해변을 이용한 고품격 생태관광지 ▪ 암태면 : 행정, 관광중심 ▪ 팔금면 : 농수산 6차산업 중심, 대체 작물 도입, 해양리조트개발 사업 ▪ 안좌면 : ‘예술문화의 섬’ 으로 특화 | |

□ 북부권

| |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- 친환경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유통 - 임자면 튜립축제와 연계한 球根 산업 -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, 슬로 시티를 활용한 힐링관광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북부권</p> |
|--|---|

| 권역 | 특성 | 발전방향 |
|---------------|---|---|
| 힐링휴양관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무안, 지도대교, 증도대교, 임자대교 ▪ 청청해양과 갯벌을 이용한 천일염 소금 생산 ▪ 증도는 슬로시티,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, 람사습지, 갯벌도립공원 등 자연보전지역 ▪ 국내 최대 청정 해수욕장과 임자도의 튜립축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임자면의 대광해수욕장, 튜립축제를 이용한 레저관광, 증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이용한 관광 ▪ 천일염의 고품격, 고급화, 국제화 전략 ▪ 소금 관련 6차 산업 확대, ▪ 지도읍 북부권 농수산물 유통 중심지로 개발 |
| 섬별 계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도읍 : 북부권 행정, 교육중심 ▪ 증도면 : 유네스코 브랜드, 슬로시티 활용 생태관광, 세계적 우수 천일염 소금생산 ▪ 임자면 : 튜립축제의 확대, 대광해수욕장 주변 개발 | |

□ 남부권

-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벨상의 섬
- 소규모 염전을 통한 고품질 소금 생산
- 장산면 민속문화를 이용한 테마관광
- 섬 농업을 통한 청정 농산물 생산




| 권역 | 특성 | 발전방향 |
|---------|---|---|
| 역사문화 관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목포에서 여객선, 하의-신의 연도됨 ▪ 역사, 문화, 해양생태 (갯벌), 민속자원 풍부 ▪ 신의면 소규모 고품질 천일염 6차산업화 ▪ 섬 농업 및 문화발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하의-신의면 연도교를 활용한 농업관광, 소금체험관광 연계 ▪ 하의면 옥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 섬 관광 중심지 개발 ▪ 하의면 큰갯벌의 보전을 통한 청정 해산물 생산 ▪ 장산면 섬 농업산물의 6차산업 ▪ 섬 농업을 중심으로 한 신안군 축제 개발 |
| 섬별 계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하의면 : 김대중대통령 생가, 옥도를 중심으로 한 큰갯벌의 보전, 노벨평화공원 지정 ▪ 신의면 : 소규모 천일염 지원 ▪ 장산면 : 섬 농업문화의 전승, 발전, 축제개발 | |

□ 서부권

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금면, 도초면 농업지역을 활용한 산업관광지 -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청정 농산물 6차산업 - 흑산도행 전진배치를 통한 흑산 군도와의 연계 관광프로그램 - 우이도 군도 관광종합개발 | <p>서부권</p> |
|---|-------------------|

| 권역 | 특성 | 발전방향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청정농업의 메카·농업관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목포에서 쾌속선, 철부선으로 이동 ▪ 다도해해상국립공원 ▪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, 습지보전지역에 포함되는 자연성이 뛰어난 섬 생태 ▪ 해양성 기후에 적합한 농산물 발굴 (예. 섬초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청정지역 해양성 기후에서 성장한 농산물 특화 ▪ 유기농업의 적극적 활용 ▪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농업 체험 관광 |
| 섬별 계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비금면 : 섬 생태관광의 중심, 흑산도행 선박 전진배치, 시금치클러스터사업 ▪ 도초면 : 우이도 권역 관광종합개발 | |

□ 흑산권

| |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흑산공항 개항에 의한 흑산군도 전반의 관광자원화 - 선사, 고대, 중세에 이르는 흑산도의 역사문화자원 - 유배문화, 자산어보, 흥어 등 해양생태문화자원 - 홍도, 가거도, 영산도 등 우리나라 최고의 섬 비경 - 미래 양식섬, 에너지 자립섬 발전을 위한 신 해양산업 기술개발 - 난대성 희귀식물의 보고 |  <p>흑산</p> |
|--|---|

| 구역 | 특성 | 발전방향 |
|----------------|--|---|
| 국제 해양관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목포에서 여객선으로 이동 ▪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, 다도해해상 국립공원, 장도람사습지에 포함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뛰어남 ▪ 흑산공항 개항 (2020년 예정)으로 접근성 용이해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흑산공항개항 대응 영향평가에 맞춰서 개발방향 확정 ▪ 흑산군도 개발을 흑산-홍도권역, 만재-가거도 권역으로 이원화하여 특성화 ▪ 난대성 식생, 식물을 이용한 자원화, 관광상품 |
| 섬별 계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흑산-홍도권역 : 흑산도와 홍도의 해양-산악을 연계한 생태관광, 에너지자립섬 개발, ▪ 영산도 명품마을 ▪ 만재-가거도권역 : 만재도, 가거도권역을 연계한 크루즈 해양레저관광, 수산양식, 수산물 6차산업 발전으로 특화 ▪ 상태-중태-하태도 : 낚시레저와 해양스포츠 관광 ▪ 가거도 : 독실산 도립공원, 명품마을 지정제안 | |

4) 읍면별 발전 방향

□ 압해읍 (관문도시의 섬)

- 동부권 행정중심지
- 목포권역과 연결된新安군 농수산 물류유통 중심지
- 목포시와 연계된 도시근교형 전원생활

□ 암태면 (새천년의 섬)

- 중부권역 행정중심지
- 중부권역 관광시설 (예 . 숙박시설) 확충
- 추포해수욕장 명품화, 추포 노들길 자원화
- 암태면 주요 마을 돌담 개선

□ 자은면 (생태치유의 섬)

- 新安군 자생식물 보전과 자원화를 통한 소득 창출
- 해수욕장과 산을 연계한 모실길 생태관광
- 새천년대교 개통 후 최대 관광지 역할
- 해수욕장의 철저한 관리

□ 안좌면 (예술의 섬)

- 갯벌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
- ‘가고 싶은 섬’ 선정사업 (반월 - 박지도)
- 김환기 예술과 문화의 섬

□ 팔금면 (농업관광의 섬)

- 농수산물 6차산업화
- 도서해양관광 배후지역
- 갯벌생태공원 조성, 갯벌의 지속가능한 활용

□ 비금면 (낭만의 섬)

- ‘섬초’ 등 청정 유기농산물 재배, 6차산업화
- 청정지역 천일염 고품격화
-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이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
- 청정 농업지역과 농산촌을 연계한 농업관광 프로그램

□ 도초면 (교육의 섬)

- 서부권 행정중심지
- 우이도지역과 연계한 해양관광지
- 청정지역 천일염 고품격화
- 섬 농산물 재배 및 특화
- 생태평화공원 조성

□ 지도읍 (수산유통의 섬)

- 북부권 농수산물 종합 유통 중심지
- 북부권 교육, 산업 중심지
- 전통시장의 활성화, 특성화
- 음식발굴을 통한 신안의 대표 맛 개발

□ 임자면 (모래의 섬)

- 임자면 상징어류인 '민어'산란지 및 해역 보전
- 재원도 생태마을 조성 및 산책길 개발
- 임자도 툼립축제와 구근(球根)산업 개발
- 대광해수욕장의 고품격 개발

□ 증도면 (느림 섬)

- 천일염의 고급화, 국제 경쟁력 획득
- 슬로시티,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프로그램 이행

□ 하의면 (노벨평화의 섬)

- 섬 청정 농업 중심지
- 역사문화 스토리 개발
- 하의면 옥도리 갯벌관광 중심지 개발

□ 장산면 (역사민속의 섬)

- 전통 섬 농업문화 보전 및 활용
- 섬 농업유산의 민속축제 발굴, 관광자원화
- 갯벌생태계 보전 및 갯벌양식 추진

□ 신의면 (소금의 섬)

- 소규모 천일염전의 특성화
- 염전을 이용한 6차산업과 관광의 연계

□ 흑산면 (해양관광의 섬)

(흑산 - 홍도권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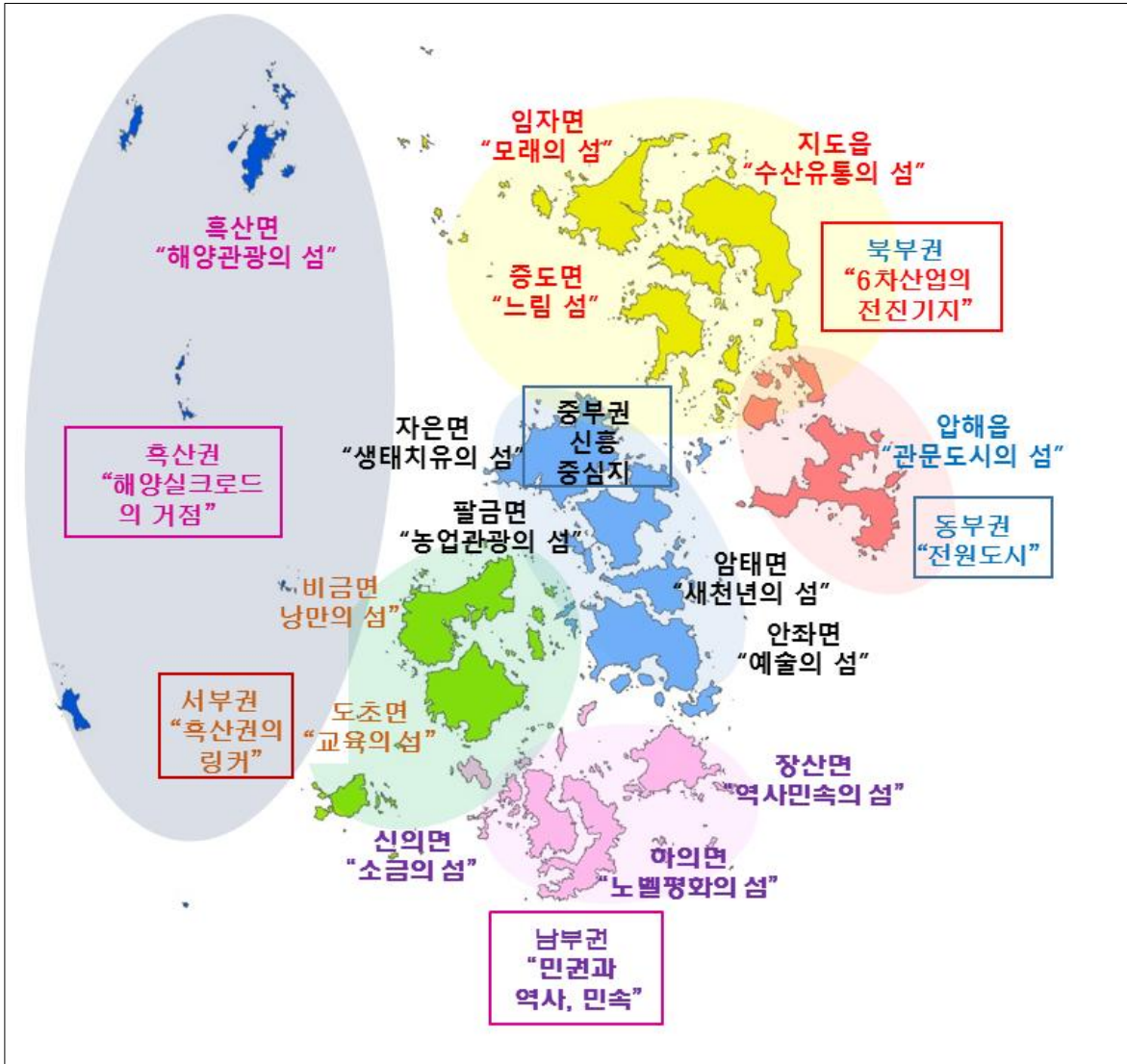
- 흑산공항 대응 관광, 산업 기반시설 확충
- 대둔도와 다물도의 해양관광과 수산양식 6차산업 추진
- 유인도와 무인도를 이용한 도서해양관광
- 영산도 명품마을
- 에너지 자립섬

(만재 - 가거도권역)

- 만재도 수산물 6차산업 가공, 유통단지

(가거도권)

- 가거도 관광기반 시설 확충
- 가거도 독실산 자연생태계 보전, 관리 대책



<그림 3-7 권역별 발전방향>